

여수시, 시립박물관 건립 속도 낸다

시민공청회서 공감대 형성...부지로 박람회장·여수석보 등 제안 내년 타당성 평가·실시설계 등 거쳐 2021년말 완공 계획

민선 7기 여수시 주요 공약인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여수는 신석기·청동기 시대 유적 등 전국 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유물과 가야·백제·고려·조선·일제강점기 등 근현대 유물을 보유한 전남 제1의 역사문화 도시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공립 박물관이 전무한 상태다.

이 때문에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한 각계 각층의 시민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최근 열렸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진남문예회관에서 열린 시민공청회에 각 분야 전문가와 지역시민단체 대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태성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장의 '현대박물관 트렌드와 여수시립박물관 건립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공청회는 이후 각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로 이어졌다.

최재성 시강대 교수와 김병호 여수지역 사회연구소 이사장, 정희선 범민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전문가, 신미경·서현수 씨 등이 시민토론회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자들은 여수 시립박물관 건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누고 박물관 건립 부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재성 교수는 여수 전 지역에 분포한 고인돌과 여수적랑동에서 발견된 비파형 동검 등 유물 가치가 높은 역사적인 유물

7000여점이 시립박물관 부지로 타 지역에 보관돼 있는 점을 강조하며 종합 역사박물관 필요성을 밝혔다.

박물관 건립 장소로는 석창지구로 보존된 여수석보 일원을 꼽았다.

김병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은 공룡화석을 비롯한 다양한 화석과 지질을 활용한 자연사 박물관, 신석기·청동기시대 유적과 전국 최대 규모의 발굴 성과에 따른 다양한 유물을 활용한 선사박물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한 구국의 중심 역사가 깃든 임진왜란박물관과 일제강점기와 여순사건을 활용한 근현대사 박물관 등 여수지역 역사문화 유물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박물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건립 장소는 접근성·효율성·경제성을 고려한 여수박람회장 주제관과 육지 부지로 여수 석보일원을 추천했다.

이밖에 정희선 청암대 교수가 박물관의 역사·문화·교육적 기능을 강조하며 박람회장 주제관 임대 활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토론회자 서현수씨는 남산공원 내 자연사해양박물관 건립을, 신미경씨는 석보

부근 역사박물관 건립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지역민들은 선사



지난 6일 진남문예회관에서 각 분야 전문가와 지역시민단체 대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여수시 제공>

유적공원 등이 박물관 위치로 적합하다는 의견제시와 함께 박물관 건립 추진의 구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7월 민선 7기 출범 이후 곧바로 여수시립박물관 건립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1일 착수한 박물관 건립 시민의견 조사 용역과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진행 중이다.

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월 공립박물관 설립 사전 타당성 평가(문제부)를 거쳐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토지매입 실시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21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립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총 250억원)가 관건이다.

여수시는 국비지원(50%)을 받을 수 있는 문제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용역 평가가 완료되면 국비사업 전환에 따른 지방비(시도비) 부담에 대한 예산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하봉영 여수시 문화예술과장은 "여수에서 발견된 유물 가치가 높고 고인돌과 적량 비파형 동검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들이 시립박물관이 없어 그동안 제대로 보존·관리되지 못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적극 반영해 시민들이 원하는 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산단 안전사고 원인은 시설 노후·관리 감독 부실"

환경안전 시민토론회서 지적

대한 대응방안도 제시됐다.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시설 노후'와 '관리 감독 부족'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수산단 50주년 기념 환경안전 시민토론회에서 임종길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장은 "생산 설비·시설 노후와 관리 감독 부재가 안전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임 지부장은 "공정을 중단하고 청소하는 '대정비' 기간에는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현장마다 발주처의 관리감독자 배치를 확대하고 감독관 인력도 부족해 현장 감독이 어려워 전문성 있는 명예안전감독관 수를 늘리고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환익 여수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도 "안전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법 위반 조사와 외부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인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조사단의 사고 원인 규명을 해야 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발주처의 법 위반 사항 및 책임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방안도 제시됐다. 김신범 노동환경연구소 부소장은 "화재사고별 대응 범위와 주체는 사고 초기에 판단하기 곤란하다"며 "화재사고 신고는 단일화한 뒤 목적에 따라 다른 대응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인 LG화학 안전환경담당 상무는 "협력회사의 사고 예방을 위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전관찰자 자격 인증제를 도입해 사고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안전 교육은 주 52시간 근무의 예외 규정을 두어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4년간 여수산단에서 총 2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전국 63개 산단(국가산단 33개) 중 울산(41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주 국회의원과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GS칼텍스기 직장 및 클럽 축구대회 29팀 참가 성료



'제14회 GS칼텍스기(旗) 직장 및 클럽 축구대회' 우승을 차지한 우리안심산팀과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국가산단 내 유일 정유사인 GS칼텍스(대표이사 허진수 회장)가 주최하고 여수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제14회 GS칼텍스기(旗) 직장 및 클럽 축구대회'가 성료됐다.

이번 대회는 지난 10~11일 이틀 동안 여수 진남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여수 지역 50개 축구동호회 중 29개팀이 참가해 청년부(20~34세), 중년부(35~49세), 장년부(50~59세), 실버부(60세 이상)로 나뉘어 부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치렀다.

올해 우승팀은 청년부 우리안심산, 중년부 아람FC, 장년부 여천서부, 실버부 취미실버 클럽이 차지했다. 우승팀에는 각각 우승기와 트로피, 상금이 수여됐다.

올해로 14회 짝을 맞는 'GS칼텍스기 축구대회'는 지역 대표 기업인 GS칼텍스가 여수지역 축구 발전과 지역사회 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2002년 신설됐다.

대회마다 평균 30여개팀의 지역 축구 동호회가 참가해 지역 축제로 자리잡았으며, 대회참가비는 전액 여수 미평초등학교와 구봉중학교 축구부에 전액 기부되어 축구에 기여하고 있다.

강정범 GS칼텍스 상무는 "지역대표 기업으로서 축구 동호인들의 화합과 지역 축구 꿈나무 육성에 작은 보탬이 되는 행사가 지속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GS칼텍스기 축구대회 개최로 건강한 지역 사회가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수소방서 56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불조심 캠페인도



여수소방서가 56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과 함께 시민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불조심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9일 3층 대회의실에서 김용호 여수소방서장과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소방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56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과 지역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기념식은 최일선에서 희생과 봉사를 통해 시민생명과 재산보호

에 앞장서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국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여수소방서는 기념식 후 겨울철 화재예방에 필요한 시민의식 확립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한영대, 여수평생학습축제서 2개 부문 우수상

여수한영대하이여수평생학습축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여수한영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1회 여수평생학습축제'에서 34개 평생교육기관이 운영한 홍보체험관 부문에서 '커피추출 기구 소개 및 드림 체험' <사진> 프로그램이 출품해 수상했다.

또 40개 평생교육기관이 겨룬 작품경연대회에서도 '여성의 아름다움은 벨리댄스'라는 주제로 공연을 펼쳐 우수상을 수상했다.

여수한영대학 평생교육원은 행복한 지역민 배움터 마련을 위해 '여수시민에게 꿈과 희망을'이라는 비전 제시와 함께 품격 있고 수준 높은 평생교육을 위해 강사진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임정섭 여수한영대 총장은 "평생교육원의 이번 수상은 계기로 학교의 전문 기술 정보를 지역민과 함께 나누는 상생 네트워크 구축과 컨트롤 타워 역할에 더욱 집중



해 가겠다"며 "앞으로 교육생들이 관련분야 전문 기량을 갖춘 직업인으로서 지역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Approved Partner Heating Instrument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 본 부시도는 고역역 이행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피,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임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스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힐 정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 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넷빌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